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0년 2월 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새 36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번 시편(Psalm) 1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2:10-18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주님의 음성 들었네”	찬양대
설 교 Sermon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He Can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543)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물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삶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개와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3: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한글개역 **히 2:18**)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NIV **Hebrews 2: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9 (주일)	2/10 (월)	2/11 (화)	2/12 (수)	2/13 (목)	2/14 (금)	2/15 (토)
	창42	창43	창44	창45	창46	창47	창48
본문	막12	막13	막14	막15	막16	눅1:1-38	눅1:39-80
	욥8	욥9	욥10	욥11	욥12	욥13	욥14
	롬12	롬13	롬14	롬15	롬16	고전1	고전2

수/요/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12 오후 7:30)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민 6:1-12)
토요 새벽기도회 (2/15 오전 6:30)	“기도의 지침, 이렇게 기도하라” (눅 11:1-4)

지난 주일(1/26) 말씀

“더욱 간절히 삼가할찌니” (히 2:1-4)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교회 안에서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생겨나는지?”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지?” 하는 (다소)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한다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하며? 무엇에 더욱 유념해야 하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혹시라도)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하며(히2:1), 2)둘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니 장차 완성될 구원을, 우리는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히2:2-3상), 3)셋째,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보아야 합니다(히2:4).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후13:5)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믿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